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푸스 앙상블·
에라토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
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
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 : 기쁨인가? ①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

작가가 되려면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고,
나아가 이 습관을 집착으로 만들어야 한다.
글쓰기는 집착이 되어야 하고,
말하고 먹고 자는 행위처럼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생명력을 가진
유기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시인 오순 다레*

”

시작에 앞서

많은 음악가들은 무대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기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기를 목표로 삼는다. 하나의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몇 시간을 연습하고, 하나의 악기를 배우기 위해 몇 년을 소비하고 나서야 청중 앞에서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거의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인지하듯, 무대 위에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연주하는 동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주하는 동안 충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날이 정해져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모든 물음은 다 소용없는 것일까?

악기로 걱정없이

악기를 처음으로 접하고 음악을 배우는 아이는 어떤 악기를 배우든지 필연적으로 큰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음악적인 소리를 만드는 것은 신비로운 과정이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특별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연주회를 가지는 음악가의 다수는 소리를 잘 만들고 조절할 줄 안다. 당연히 과정은 복잡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자체가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임에 비하면 감내할만하다.

음악학도로서 무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교와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연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악기를 다루기 어렵더라도(악기를 들기 어렵거나, 연주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보상받는다 생각하면 즐거움을 찾기 수월해진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신체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찾아내는 것이 연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준비단계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탄탄해야 한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유화로 칠하기 위해 스케치를 먼저 할 것이고, 건축가는 건축을 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본 요소들을 계산하며, 재즈연주자는 즉흥곡을 연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리듬과 멜로디 패턴을 연습할 것이다.

청중의 관점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음악가의 준비동작이 작품의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준비한 작품의 결과가 허용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음악가는 청중 앞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로 연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없다면, 무대 위에 설 때마다 생기는 긴장감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주하는 이가 실내악 연주 단체나 오케스트라에 속해 연주하게 될 경우,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무대 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리허설은 필요 없는 에너지와 시간 소모로 끝나 버리고 만다. 하나의 곡을 연습하는 것은 건축물을 쌓는 것과 같다. 기초가 견고하고 촘촘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 없이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없고 공연이 만족스러울 수도 없다.

만족감

연주 준비를 위해 한 곡을 몇 시간이나 연습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교를 얻게 된다. 또한 연습으로 인한 만족감도 얻게 된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자신도 모르는 불안한 기분 때문에 좋은 컨디션이 망가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은 연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몸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리어 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는 불안함을 대비해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연주할 때 집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반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큰 그림 없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연을 하는 상황은 연주자의 심리 상태를 매 연주 때마다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연주자가 느끼는 공연에 대한 불안함을 잠재우고 감정적으로 생산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음악적 해석력을 풍부하게 만들고 미리 계산하지 않은 깊은 울림과 음악적 프레이즈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반대로, 긴장감이 전혀 없는 연주자는 무대 위에서 쉽사리 지루해져 만족감을 느끼기도 힘들 것이다. 아마도 그에게 감정적인 도전이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연주를 즐기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마인드가 연주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다음호에 언급하겠다. (다음 호에 계속)